

전세계 한인 선교사 500여 명 모여 연합의 장 펼친다

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
 7월 7(월)~11(목) 4박 5일간
 남가주사랑의교회서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올해 7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예수, 구원의 그 이름!”(Jesus No Other Name!(행 4:12)이라는 주제로, 500여 명의 전 세계 선교사 가족과 약 2,000명의 남가주 성도들이 참여해 열린다.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1988년 처음 시작된 이래 늘 시카고 휘튼대학교에서 개최됐으나 남가주에서는 지난 2016년 아주사 퍼시픽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게 됐다.

통상 4년마다 개최해 오던 대회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올해 7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600여명의 전세계 선교사 가족과 2000여 명의 남가주 성도들이 참여해 열린다. 4일 오전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대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후 단체 촬영을 했다. ©기독일보

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열렸고, 앞으로 2년마다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열 것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번 선교대회는 팬데믹 이후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선교운

동의 확산, 남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미주한인교회의 선교활성화, 선교 전문영역의 소개와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목적으로 열린다. 등록비는 300달러이지만, 주최 측은 조정이 가능하며 누구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크게 두 트랙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반트랙에서는 처음 선교를 나가는 이들을 위한 선교사들의 간증, 선교 기초 입문 과정 등의 모임이 있고, 특별트랙

에서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Bas-Mission), 교육, 미디어, 병원 및 군대의 채플린 등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 6면에서 계속

美 남침례회, 여목사 영구 금지 헌법 개정안 부결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SBC)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이 정족수에 5%p 못 미쳐 부결됐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SBC 총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전체 대의원의 61%인 5,099명이 찬성하고 38%인 3,185명은 반대했다. 비준을 위해 필요한 찬성표는 2/3(66.66%) 이상이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3년 6월에 열린 SBC 총회에서 버지니아주 알링턴침례교회(Arlington Baptist Church) 마이크 로(Mike Law) 목사가 제안했을 때보다 훨씬 낮은 지지를 얻었다. 당시 해당 개정안은 약 80%인 12,000명 이상의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침례회리더십센터(Center for Baptist Leadership) 윌리엄 울프(William Wolfe) 사무총장은 “마이크 로 목사는 영웅이다. SBC에 미래가 있으려면 부패하고 타협적인 플랫폼 리더십을 로와 같은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투표에 앞서 로 목사는 “지난해 우리는 SBC에 여성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가 1,800개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법안을 지지한 노스캐롤라이나 풀리의 캐피탈커뮤니티교회(Capital Community Church) 그랜드 R. 캐슬베리(Grant R. Castleberry) 목사는 “이 법안은 현대 SBC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비준을 위해 공개적으로 기도했다.

버지니아주 미들러디언에 있는 ‘빌리지교회’(Village Church) 스티브 젠트리(Steve Gentry) 목사도 이에 동의했다.

그는 투표에 앞서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우리가 비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난 분명히 말하고 싶다. 난 법 개정안에 투표했다. 결과에 관계없이, 이는 SBC의 삶에 필요한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SBC의 신임 총회장이자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 있는 히코리그로브침례교회 클린트 프레슬리(Clint Pressley) 목사도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침례회 신앙 및 메시지(BFM) 2000’에 따르면 목사란 “목사직을 수행하고 목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성”을 의미한다. → 6면에서 계속



엑스플로 '74' 대회 당시 모습. ©서울시 제공

한국교회 부흥 발판된 <엑스플로 '74> 50주년 대회 열린다

과거 한국교회 부흥의 발판이 된, 복음주의 대형집회 중 하나였던 <엑스플로(EXPLO) '74> 대회의 5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기념대회가 열린다.

한국CCC(대표 박성민 목사)

는 ‘We The Sent’(요 17:18)라는 주제로 이 기념대회를 주최한다. 당시 <엑스플로 '74> 대회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한국CCC를 창립한故 김준곤 목사이기 때문이다.

→ 6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행정법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리모델링 전문 ADU 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Lic#854389 K-Urban Builders Inc.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제1회 풀러 선교 음악회, 선교의 열정 뽐내다!

풀러 선교학 박사 동문회 주관, 사랑의빛선교교회서 부름심에 대한 순종으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선교사 후원

지난 6월 9일(주일)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에서 제 1회 풀러 선교학 박사 동문회 선교음악회가 개최되어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되새기고 영감을 주고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시간을 제공했다.

특별히 이번 음악회는, 풀러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 동문회에서 이번 음악회는 우크라이나로 부름을 받은 이훈우 선교사 가족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준비됐다.

이 아모스 목사(LA씨티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선교음악회는 김은정(남가주 새누리교회 수어 찬양 통역사, 새생명 비전교회 시니어대학 수어 강사)의 '하나님의 열심', '이 시간 너의 맘 속에' 수어 찬양, 조영석(미주복음방송 In His time 진행자)의 자작곡 '십자가 그 위에', '새 날', 재즈 피아니스트 이선형(뉴욕 가스펠 밴드 '달광성' 건반주자)과 John Park(일렉트릭 베이스)의 '오 신실하신 주', '내 주를 가까이 연주', CCM 가수 구현화의 '시편 19편', '당신을 물댄 동산으로', 헌금송으로 이선형, 김은정, 이 아모스의 '하나님의 은혜', 정종원의 '하연이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로스 엔젤레스 프레이즈 앤드 워십 밴드(Band-Los Angeles Praise and Worship, 리더 Randy Kim)이 'Gratful For',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와 같이 갈 가는 것'을 파워풀한 찬양과 연주로 선사했으며, 다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를 찬양했다.

다음날 우크라이나로 출국할 예정인 이훈우 박사에게 풀러 코리아 센터 학장 김권수 교수가 이날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전액을 전달했고, 풀러 신학교 김에녹 교수



풀러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 동문회가 주관한 제1회 풀러 선교 음악회가 오는 6월 9일(주) 오후 5시 30분에 파사디나 소재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에서 개최됐다. ©기독교일보

의 축복기도로 음악회가 마무리됐다.

이번 콘서트에는 미주 행복한 커피학교와 글로벌 힐링문화협회가 함께해 커피와 칼리그래피 작품을 제공했다.

Hope Fam 여성세미나, PIM 선교회(대표 이훈우 선교사), 하노이 선교교회(이보용 박사),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 LA씨티교회(씨니 김 박사), 언론사 및 여러 단체에서 후원했다. 주디 한 기자

문의: 풀러선교학박사동문회 회장 김권수 박사 818-383-7926, 이훈우 박사 626-437-0045 (Email: pi-mission1004@gmail.com) 후원계좌 Bank of America (Hun-woo Lee) 계좌번호 32512500769

사랑, 나눔 그리고 위로의 음악회

연합 선교 음악회 성료, 모든 수익금은 가난한 나라 장애인 지원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가 주최하고 월드쉐어USA 합창단(주사랑 나눔 선교 합창단)이 주관한 연합 선교음악회가 지난 6월 2일 오후 7시에 미주평안교회에서 개최됐다.

강태광 목사의 월드쉐어 사역 소개 및 음악회 취지 설명에 이어, 이수호 목사(올림픽 장로교회)가 음악회를 위해 기도했으며 주사랑 나눔 여성 합창단, LANAM성선교 합창단, Los Angeles Christian Singers, Los Angeles Chamber Choir, 베아투스 합창단 총 5팀이 공연했다.

음악성과 믿음의 열정을 갖춘 합창단의 연합은 품격있는 음악회를 선사했으며 청중들은 숨죽여 감상을 감상했다.

음악회가 끝나자마자 음악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미주 성시화 대표 송정명 목사는 "이렇게 수준 높은 음악회는 흔치 않다. 짜임새, 진행, 음악성 모두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했고, 월드쉐어 홍보이사 박세현 목사(예수로 교회)는 "탄탄한 실력을 갖춘



월드쉐어 USA 주최로 크빈아동지원을 위한 선교음악회가 6월 2일(주일)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기독교일보

합창단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나눔과 섬김을 위해 함께 연합한 뜻 깊은 음악회였다"라고 했다.

이 음악회를 기획한 강태광 목사는 "이번 음악회의 의미는 나눔과 위로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가난한 나라 이웃들을 사랑과 나눔으로 섬기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 교민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좋은 음악회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참가한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모든 단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합 선교음악회에서 모인 지원금은 아이티의 Dernier Dieuvenue(소녀가장), 도미니카의 Rosa Martinez(하반신 마비 장애인), Daniel Marte Miese(하반신 마비 장애인) 등의 세 아이를 비롯해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 장애인 동등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월드쉐어USA의 공식 합창단인 주사랑나눔여성 선교합창단은 다음 발표회를 준비하며 회원원을 모집하고 있다(연락처 323-630-7333)이다. 김민선 기자

월드미션대학 발달장애와 정신건강 세미나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정명화 프로모터 강남대 김호연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는 디에스림 재단(DSLIM Foundation)과 협력해서 오는 6월 18일(화) 1시~3시까지(미서부 시간) 사회복지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발달장애와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정명화 프로모터가 발표하고, 이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지원'이라는 주제로 한국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김호연 교수가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LA카운티 정신건강국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정신건강 대응법과 정신건강국 소개 및 다양한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월드미션대학교 5층 스마트강의실과 온라인 줌(Zoom)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세미나
 • 발달장애와 정신건강 (정명화 프로모터, LA카운티 정신건강국)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지원 (김호연 교수,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일시 | 2024. 6. 18 화요일 1:30pm 미서부
 장소 | 스마트 강의실 혹은 Zoom 온라인
 등록 | QR코드 신청(6/17 마감)
 문의 | 213-388-1000 (월드미션대학교 이현아 교수 hyunalee@wmu.edu)

사회복지세미나가 6월 18(화) 오후 1시~3시까지 학교 5층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김민선 기자
 신청링크: <https://forms.gle/pvtWLdGLHqJPBdJdA>
 문의: 이현아 사회복지학과 교수, 213-388-1000

감사합니다

감사예배와 선교음악회에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출판 감사



대표 강태광 목사



후원회장 박건섭 목사



설교자 송정명 목사



축사 강순영 목사



축사 최학량 목사



축사 이병국 목사



격려사 이재권 회장



격려사 서요한 박사

연합 선교 음악회



주사랑 나눔 여성 합창단



LA Christian Singers



LA 남성 선교 합창단



LA Chamber Choir



베아투스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Kangtg1207@gmail.com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발렌시아 샘물 20년 청년으로 성장, 새로운 출발점에 서다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 믿음을 배웠고 하나님은 그런 저를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으로, 제 힘이 아닌 100% 은혜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는 놀랍도록 강했다. 성도 한 명이 없어도 복음을 위한 사명은 포기하지 않았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발렌시아 샘물교회(담임 이건창 목사)가 지난 9일 오후 4시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건창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 복음만을 붙들었을 때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는 나로 빚어서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바울에게 동역자가 있었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듯, 성도들의 동역으로 20년을 지나올 수 있었다. 강력한 은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영길 목사(TMF 선교회 대표)는 “창세기 안에서 천지창조와 재창조의 진리를 발견했다. 창조는 1장 2장에 불과하지만 3장부터 50장까지는 재창조의 역사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 재창조의 사역을 하셨는데, 재창조의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 요셉이다. 그의 어떤 점이 보시기에 좋았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보려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것처럼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던지 충성된 사람이었다. 둘째,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재해석하고 언제나 감사했다. 셋째,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재창조하신다. 20주년 맞은, 청년으로 접어든 발렌시아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재창조되고 거듭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직받은 박용란 권사는 “하나님께서 샘물교회를 통해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다. 직분을 받은 자로써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임직자 대표로 인사했다.

남강식 목사(LA만나교회담임)는 “성도와 목사의 능력은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 앞으로 사역할 때 내 뜻과 내 주장을 내세우게 아니라 격려와 용서 포용함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직분자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이인규 목사(기독일보 대표)는 “20주년을 맞이까지 발렌시아 샘물교회라는 배가 파선을 당하는 것 같은 수많은 위기와 환란을 겪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발렌시아



2004년 6월 6일 주일 창립된 발렌시아 샘물교회(이건창 목사)가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이건창 목사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그를 할 수 있는 자로 바꾸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스크린샷

샘물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했을 수 있을 믿는다. 이 위로로 회복되어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이건창 목사의 인도로 에스라 김 목사(생명의 바람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헤리슨 집사의 성경봉독, 김영길 목사의 설교, 창립 20주년 감사영상 상영, 발렌시아 샘물교회 중창단의 헌금특송, 이대교 목사(나성동산교회)의 봉헌기도 후에 남강식 목사의 임직문답을 통해 명예권사에 서영애, 권사에 박용란, 집사에 최낙용 씨가 각각 임직했다. 임직자들에게

이건창 목사가 임직패를 수여하고 안보슬 사모의 축가 후, 이경환 목사(나성동산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100퍼센트 성경, 100퍼센트 복음”이라는 슬로건을 지닌 발렌시아 샘물교회는 말씀 중심의 목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예배는 주일 오후 12시 30분, 화요 저녁 성경공부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화~금) 오전 6시(토)이다. 조셉 리 기자 주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문의: 661)219-5434



서영애 명예권사, 박용란 권사, 최낙용 집사가 새로 임직했다. ©기독일보

제3기 살렘 종강식, “목회자 가정의 상처 치유하는 뜻 깊은 시간”

목회자 가정의 상처 치유하는 살렘 세미나

지난 6월 9일 오후 5시에 GIFT(Global, Individual, Family, Transformation) 상담치유 연구원(원장 전달훈박사, 전루디아 박사)은 제3기 살렘 종강식을 진행했다. 전문의이며 신학교에서 관계심리학과 영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전달훈 장로와 임상심리학 박사인 전루디아 권사는 신앙인의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 목회자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필요성을 깨닫고 3년 전부터 살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3기 살렘은 지난해 8월에

세미나를 마치고 온라인 미팅과 대면 미팅을 교차하여 여섯 번의 세미나와 나눔을 가졌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살렘 세미나 강의와 동료들과의 나눔을 통해 각자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치유, 회복,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다고 간증했다. 목회자와 사모는 사역과 주위 시선의 기대에 짓눌려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소위 상처입은 치유자들이다.

살렘 3기는 이런 목회자 가정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뜻 깊은 기회였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 목회자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가르침과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고, 한 목회자 부부는, “살렘 세미나를 통해서 부부간의 갈등과 아픔을 극복했고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휘청거리던 사모들도 회복할 힘을 얻었다”고 했다. 이날 종강식에는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참석해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살렘 1기와 2기 수료자를 대표해서 김관중 목사와 박세현 목사가 격려했다. 종



수료자들이 수료증을 들고 기념 촬영. ©GIFT상담치유연구원
강식의 모든 순서는 양경선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김민선 기자

| 2024년 KWMC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 |

예수

구원의 그 이름

Jesus, No Other Name!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행 4:12)

대회 참가 등록 안내
 등록방법 : 온라인 등록 kwmc2024.org
 등록혜택 : 식사(6회), 책자, 기념품, 전문영역 참가, 일반영역 참가 자격 등
 문의 : 이명철 사무국장
 213-605-2517 kwmc.usa@gmail.com

일시 : 2024년 7월 8일(월) ~ 11일(목) 장소 : 남가주사람의교회 (Anaheim, CA)

협력단체 : GBC 미주특임방송, 전한 사단법인 복음의전함, KW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C 한국세계선교사모회

 개회사 KWMC 상임의장 고석희 목사	 개회설교 KWMC 대표의장 이승중 목사	 성찬식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	 아침설교 연비인베렐교회 김한요 목사	 아침설교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류승렬 목사	 아침설교 헬름우성교회 김대영 목사
 저녁설교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저녁설교 은혜안인교회 한기홍 목사	 저녁설교 남가주사람의교회 노창수 목사	 성경강해 심자기의교회 양성일 목사	 성경강해 Douglas Petrovich 교수	 성경강해 캐나 선교사 이재혁 선교사
 주제강의 유엔 식량농업기구 기술고문 40년 선교사역 (KWWA) 설립자 김해구 박사	 주제강의 UK Cross mission 선교사 배안호 선교사	 주제강의 LA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주제강의 i2 ministry Joshua Lingel 교수	 주제강의 WEA Ef Tendo 감독	 주제강의 복음의전함 이사장 고정민 장로
 선교대담 KWMA 사무총장 강대홍 선교사	 선교대담 KWMF 회장 방도호 선교사	 주제발표 Global Connectors for Advancement 김앤드류 선교사	 주제발표 KWMC 사무총장, 글로벌호프 대표 조용중 선교사	 폐회설교 필그림선교회 양준길 목사	 특별 찬양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미주 크리스천신학대학교 2024년도 졸업예배 거행

6월 8일(토) 오전 11시 마가교회서 올해로 설립 9주년, 총 23명 졸업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이하 CTU, 총장 엘리야김 박사)의 '2024년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8일(토) 오전 11시에 마가교회 본당에서 거행됐다. 올해로 설립 9년을 맞이한 CTU는 올해 총 2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BA: 8명, M.Div.: 8명, Th.M.: 3명, D.Min.: 4명)

진에녹 박사(CTU 교무처장)가 인도한 1부 졸업예배는 졸업생 입장에 이어 김정환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가 기도하고 조현숙 목사(남가주여성목사회 부회장)가 빌립보서 2:6-11을 성경봉독한 후, 에버그린 여성 합창단(지휘 노혜숙 권사)의 특송에 이어, 민준기 목사(CTU 대학원장)가 "이 마음을 품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섬길 수 있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이하 CTU, 총장 엘리야김 박사)의 '2024년도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8일(토) 오전 11시에 마가교회 본당에서 거행됐다. ©기독교일보

할 수 있다며,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으로 채우는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추는 마음, 죽음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김보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의 헌금기도, 에덴선교무용단의 특별 공연, 안신식 박사(홍보처장)의 광고에 이어 이태환 목사(남가주 원로 목사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학위수여식은 이경화 박사(CTU 신학대학 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은주 권사(CTU 운영이사장)의 개회사, 샘신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의 기도, 서사라 박사(CTU 실천처장)의 학사보고, 학위수여식, 교수소개, 축가, 축사, 권면, 졸업생 대표 서진권 장로의 답사, 테너 조한우 전도사의 축가 및 엘리야 김 박사의 인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엘리야김 박사는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오늘로 CTU가 9년을 맞이하면서 졸업생 76명을 배출했다. 하나님께 인정 받을 수 있는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CTU는 2015년도 RPCA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의 총회 신학교로 시작하여, 2015 8월 주정부의 허가를 내고, 주교육국에 신학 전문의 인가를 받았다.

주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웹 사이트: www.ctsua.org



ANC온누리교회 멕시코 유카탄 의료선교 사역 모습. ©anconnurimission.org/

ANC온누리교회 전문 의료 상담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에서 6월 전문의 의료상담을 제공한다. 6월 16일에는 치과 상담, 6월 23일에는 암 상담을 할 수 있다.

장소는 의료실(계단 윗쪽 D동 건물에 위치)이며 예약 및 문의는 이복희 팀장(818-926-2283)에게 문자로 하면 된다. 주소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월서연합감리교회 구진모 목사 은퇴

월서연합감리교회 구진모 목사가 6월 말 은퇴하고 하와이 감람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영성 목사가 7월 1일 부로 후임 목사로 부임한다. 이영성 목사는 로스펠리즈 연합감리교회 부교역자(2004-2008), 남

가주 주님의 교회 부교역자(2009-2012), 남가주 주님의 교회 영여 회중 담임(2011-2012), LA복음 연합감리교회 제2대 담임을 역임(2013-2018)하고, 2018년 7월에 하와이 감람연합감리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해 시무했다. 주디 한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 2024 졸업예배 성료

교차문화학 박사 2명, 선교학 박사 1명, 석사 29명, 학사 11명 43명 학위 취득

그레이스미션대학(총장 최규남 박사)은 2024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3일(월)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거행했다.

김현완 교무처장 사회로 열린 졸업예배는 안송주 교무학장 기도, 이재석 교수 성경봉독에 이어 한기홍 이사장이 "마지막 때, 사역지는 이렇게 준비되어야 한다(요 8:2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지식이 잘에 활용되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는가 중요하다"고 운을 폈다.

그는 사역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불타는 사명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을 사역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는 것'이라고 꼽았다.

학위수여식은 이병구 박사원 학장이 졸업생 프로필 소개, 시상, 최규남 총장 권면, 김종욱 목사(교단 상임총무) 축사, 김영환 목사(동문회장) 격려사, 졸업생 이동 특송, 공로 및 감사패 증정, 최경하 졸업위원장 졸업생 대표 연설, 축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규남 총장은 복음의 진리, 복음주의 신학의 수호, 하나님의 사

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끊임 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뇌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날 교차문화학 박사 2명, 선교학 박사 1명, 목회학석사 21명, 기독교상담학 석사 1명, 기독교교육학 석사 3명, 교차문화학 석사 4명, 신학학사 4명, 기독교상담학 학사 7명 등 총 43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김민선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 2024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3일(월)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 ©GMU

아버지 밥상교회(홍리시미션)
 홍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교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5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가든그로브지역 새로운 클리닉

가든그로브점 새롭고 젊은 주치의!

시니어 전문 케어

최대 1시간 진료

정확하고 친절한 진단

내과전문의

가든그로브점 주치의

임유일, D.O.

EUIL LIM, D.O.



"어머님 아버님들께 건강한 삶을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예방 접종



부인과 질환

특별 진료과목



TMJ 보톡스

이갈이/이악물기/턱관절장애
증상 완화를 위한 보톡스 치료



IV 테라피

체력 저하, 만성피로 치료
활력 증진 & 통증 완화

진료는 예약제로 운영되오니 예약 및 문의는 전화주세요.

진료시간 월-금 8:30 AM - 5:30 PM ☎ (714) 583 - 8569

📍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핑동!

1



센터메디컬그룹 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주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이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father's
day



선교사 초청과 간증 통해 네트워크 형성

→ 1면 기사 <전세계 한인 선교사>에 이어서

7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첫째 날 오후 7시에 열리는 저녁집회에는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가 강사로 나선다.

둘째날에 저녁집회에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셋째날 저녁에는 노창수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가 강사로 예정돼 있다. 이밖에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이슬람 전문가 조슈아 링겔 교수, 케냐 선교사 진재영 목사,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등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해 선교 강의를 하게 된다.

또한 주최측은 이번 선교대회에 500여 명이 넘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들이 대회에 참석

할 예정이라서 선교사들과 일반 성도들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교회에 가능한 많이 홈스테이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남가주사랑의교회는 대회가 끝난 이후 돌아오는 모든 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선교사들이 설교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일 기자회견에서 KWMC 사무총장 조용중 사무총장은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중요한것 같다. 11일 목요일 점심에 대회를 마치는데, 그 주말에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초청해 주기 바란다. 가능하면 금요일 저녁이건, 주일에 선교사들에게 말씀과 간증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바란다”며 “선교사들이 이 지역의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선교사들에게 너무 중요하다”

고 했다.

김한요 목사는 “팬더믹이 지나고 서부에서 가장 큰 대회가 열리는것 같은데, 팬더믹 이후에 헌신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팬더믹에 대한 후유증이 있는것 같다. 선교대회를 통해서 헌신자가 배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한기홍 목사는 “오렌지카운티에 팬더믹 이후로 100개의 한인 교회가 사라졌다. 교회들이 최대한 연합해서 선교의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선교사들을 잘 모시고 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웃교회와 연합해서 이번 대회를 섬기려 한다. 교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온라인 등록: kwmc2024.org



500여명의 선교사와 200여명의 MK, PK 등

과거 한인 세계선교대회 모습. ©kwmc2024.org/

→ 1면 기사 <美 남침례회...부결>에 이어서

이 메시지의 제6조는 “성경의 직

분은 목사와 집사이며, 집사직은 남성과 여성 모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지만 목

사직은 성경에 의해 자격을 갖춘 남성으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SBC 총회. ©Baptist Press

지난해 이 개정안에 대한 투표는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한 리워렌(Rich Warren) 목사의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를 제명하는 것을 88%의 총대들이 찬성해 가결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펀크릭침례교회(Fern Creek Baptist Church)도 여성 목사가 있다는 이유로 92%의 찬성을 얻어 제명됐다.

당시 총회에서 대의원 10명 중 9명은 여성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제명하는 데 투표했다.

강혜진 기자

인류의 최저점,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

→ 1면 기사 <한국교회 부흥...>에 이어서 CCC는 “민족복음화의 꿈을 꾸며 ‘예수 혁명, 성령의 제3 폭발’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성령 폭발의 현상이 됐던 <엑스플로 74>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대회는 당시 대회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며 ‘연합, 전도, 기도, 선교’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엑스플로 7424>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엑스플로 74> 대회는 지난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32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회 기간에만 27만여 명이 결신했고, 대회 이후에도 훈련받은 평신도 민족복음화운동원들이 각 지역과 직장, 사회 각 영역에서 민족복음화의 불씨가 됐다고 CCC는 설명했다.

이번 50주년 기념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저녁집회와 선택 특강, 오전 특강, 전도 훈련, 새진구반, 선교·비전·통일박람회, 교수·CBMC 콘퍼런스, 순례전도 등이다.

대회장인 박성민 목사(한국CCC 대표)는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젊은 학생들이 있었다. 한국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가지만, 인간의 가장 어렵고 절망스러운 최저점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며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부흥의 꿈을 꾸고 민족을 넘어 세계복음화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소원한다. 50년 전 <엑스플로 74>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아 여러분이 영적 폭발 운동을 일으키는 <엑스플로 7424>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CCC는 이번 기념대회를 개최하며 ‘연합, 전도, 기도, 선교’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 해외 단기선교와 함께 지역 교회 및 전국 CCC 각 지구가 연합하는 도시전도를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회 개최 전부터 지역 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Gateway, THE FOUR, 어린이 EDI, PCS 관계 전도, 코저너 등 CCC의 다양한 전도 도구를 지역 교회의 필요에 맞게 전수하고, 지역 마마클럽과 함께 50주년 기념대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등 연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CCC 해외선교 팀장인 김장생 간사(GCM 책임)는 “2024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전 세계

174개 국에 선교사 21,917명을 파송했다. 그러나 신규 파송 선교사가 573명으로 은퇴와 사역 중단 선교사의 수(528명)와 비슷하다”며 “특히 20~30대 선교사는 전체의 6.92%로 1,517명이며 매년 젊은 선교사의 비율이 줄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CCC는 단기선교, 스팀트, 선교사 파송 등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 이후 양적, 질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는 35개국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620명 이상의 해외 참가자들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누군가는 선교의 깃발을 힘차게 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일에 기폭점이 필요하다”며 “<엑스플로 7424>를 통해 선교 헌신의 불씨가 붙어 CCC가 한국교회와 세계 각처에 선교 운동의 불을 재점화하는 제2의 SVM운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CCC는 “이번 5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며 전국 각 지구에서 지난 4월 25일과 26일, 지구 채플 시간을 활용, 대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호수아 기도회’를 개최했으며,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도 CCC 학생들이 직접 각 지구와 캠퍼스 SNS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로 대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청년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CCC 65대 전국총수장(전국 학생 대표) 류지호 학생(경희대 4년)은 “CCC 학생들은 이번 <엑스플로 74> 50주년 기념대회를 ‘하나님을 알아가자’(요 17:3)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민족 단위의 연합과 뜨거운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보냄 받은 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한다(행 17:26-27, 요 17:18)”고 밝혔다.

이번 50주년 기념대회 전체 진행을 맡은 이종태 간사(SLM 책임)는 “50년 전 <엑스플로 74>가 이후 80~9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로까지 확장되는 촉매가 됐던 것처럼, 다시 한번 ‘We The Sent’, 보냄 받은 자로서 우리 각자의 환경과 처소에서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새로운 세대를 세우는 데 이번 대회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진영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p>이사의 명가(名家)</p> <p>귀국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p>시내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p>자동차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p>가주 삼성 통운(주)</p> <p>타주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p>해외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samsungmoving@gmail.com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모든 예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훈 담임목사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린성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318@gmail.com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밤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령집회 오후 7:30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김영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킴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 90602
T. (714)683-9894 windofliffec@gmail.com



주일예배 성경공부 오후 1:00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일새벽기도회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수요예배 2부 오후 7:0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균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일 저녁 8시
수요 (온라인) 새벽기도 주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연제(오정시)
주요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 (한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한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

오홍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토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30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c@gmail.com



제43차 정기총회 '리바운드' (RE-BOUND) 성황리 개최

미국 최대 남침례 연례회의 (SBC annual meeting)

지난 6월 10일 인디애나폴리스 Marriott Hotels 에서 총회장 조나한 목사의 개회 선포로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인디애나폴리스 총회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 송출로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석하지 못한 교회와 목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총회 일정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총회장 후보는 서류 심사를 통해 김영하 목사(살롬선교침례, CA), 제1부총회장에 이태경 목사(엘파소중앙침례, TX)가 입후보를 마친 것으로 김은복 선관 위원장이 밝혔다.

제2부총회장은 일반적으로 정기총회 준비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2025년 달라스(TX) 총회에 맞춰 텍사스 북부지방회에서 추천될 전망이다. 제2부총회장은 별도로 입후보하지 않고 현장에서 추천되어 찬반을 묻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현 강승수 총무가 세 번째 임기가 가능하게 될지도 관심 사항이다. 총회 헌법은 총무의 임기는 4년이며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SBC 총회, Clint Pressley 신임 회장 당선

2024년 남침례교(SBC) 연례 총회에서 클린트 프레스리(Clinton Pressley)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총회는 6월 11일부터 12

일까지 인디애나폴리스의 인디애나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으며, 주요 현안으로는 여성 사역자 문제, 재정 투명성, 성적 학대 개혁 등이 논의되었다. 클린트 프레스리의 신임 회장 당선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으로 SBC

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이번 총회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교회의 미래를 모색하는 중요한 모먼트였다고 총회 관계자는 전했다.

제43차 정기총회 프로그램 주요 설교자 및 주요 행사

2024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디애나폴리스의 Marriott East 에서 열리는 제43차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설교자와 주요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 총회의 주요 행사는 10일 환영과 축하, 저녁 집회(Dr. J D Greear), 11일 새벽 부흥회(박성근 목사), 오전 집회(Greg Mann 선교사), 저녁 집회(박성근 목사), 선교 축제, 12일 새벽 부흥회(김성도 목사), 총회장 메시지, 정기총회 개회(조나단 총회장), 저녁 집회(박성근 목사), 청소년 축제로 구성되었다. 이번 총회는 다양한 논의와 함께 교회의 미래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창한 기자



미남침례회 한국 총회의 43차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남가주 장로 성가단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제 열린다

남가주 장로 성가단과 함께하는 '제1회 선교 찬양제'가 오는 23일 6시 나성영락교회(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에서 열린다.

남가주 장로 성가단은 지난 1992년 12월 14일 교파를 초월한 20여 개의 교회에서 모인 25명의 장로들로 창단되었으며 펜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11월에 정기공연을 개최한 유서 깊은 성가단이다.

남가주 장로 성가단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통한 복음전도 사역으로서 선교 및 지역 사회의 기독교 문화 활동을 담당하며 단원 상호간의 친교 및 교회 음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120여회 이상의 선교 찬양 연주를 한 바 있다. 대개가 30-32년차의 베테랑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앙과 덕행에 모범이 되며 교회 성가대 경험을 통해 교회 음악의 기본적인 재능을 겸비한 성가단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식사 및 교제 후 8시30분까지 나성

영락교회 교육관에서 연합하며 선교에도 앞장 서서 지난 2015년에는 베트남 벤째 성 소재 '흥노영교회'를 개척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단장 한경환 장로를 비롯하여 총무 엄광섭 장로, 운영 최덕원 장로를 비롯 서울대 음대 출신의 장진영 지휘자가 탄탄한 기본기로 성가단을 이끌고 있다.

이번 찬양제에는 초교파적으로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어린이합창단 등 다양하게 참가 하고 있다. 남가주 장로성가단을 비롯하여 CTS A. MISSION CHOIR, 벨리한인여성매스터코랄, 나성영락교회찬양대, 오렌지미션콰이어 (ORANGE MISSION CHOIR), 보치엘레스티 어린이 콰이어 (VOCELESTI CHILDREN'S CHOIR), 남가주장로성가단 중창팀 등 총 7

남가주 장로 성가단이 함께 하는 '제1회 선교 찬양제'가 6월 23일(주일) 6시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다. ©남가주장로성가단

개념이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성가제의 수익을 통해 성가단은 장로 출신 목사이며 네팔선교를 담당하는 김경생 목사를 비롯 아프리카와 사회적 약자 및 찬양사역자들을 도울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문의: 818-307-7059



사우스베이 목사회가 6월 정기예배를 드렸다. ©사우스베이 목사회 제공.

사우스베이 목사회 6월 정기 예배

사우스베이 목사회가 6월 정기예배를 한인소망교회(윤목 목사)에서 드렸다.

김우준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된 예배에서 남상권 목사(남가주어노인침례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윤 목 목사가 설교했다. 윤 목사는 로마서12장 2절-3절을 본문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생각'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윤 목사는 "사람이 변화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마음이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 마음도 육신도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야만 내 육신도 온갖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심 기도시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와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윤 목 목사의 축도로 정기 예배가 마무리 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교회에서 Los Verdes 골프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친교 식사를 대접하면서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 단체에 소속하고 선교활동하고 있는 박종희 목사는 오는 12월에 San Pedro 있는 노인 아파트를 방문해 선물과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믿을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애니문 보험과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인도 총선, 모디 총리 가까스로 과반 승리... “힌두 민족주의 약화 시사”



인도 국기 ©pixabay.com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주도하는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이 과반 승리했지만 애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모디 총리의 페르소나와 힌두 민족주의의 매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보도했다. 힌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기독교인과 다른 소수자들에게 대한 극심한 박해를 촉발했다. 델리에 본부를 둔 연합기독교포럼(United Christian Forum)의 회장인 마이클 윌리엄스(Michael Williams) 박사는 CP에 “선거 결과는 인도가 더욱 민주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4월 19일부터 6월 1일(이하 현지시간)까지 7단계에 걸쳐 진행된 하원 543석 선거에서 BJP가 이끄는 여당 국민민주연합(NDA)은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가 주도하는 야권 정치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와 대결했다.

5일 오전 집권 여당인 BJP가 주도한 NDA는 인도 하원 전체 의석 543석 가운데 293석을 차지해 과반 272석 달성에 성공했다고 인도 현지언론 타임스 오브인디아는 전했다. 이로써 모디 총리는 3연임을 달성하게 됐다.

인도에서 정당이나 연합이 정부를 구성하려면 272석의 과반수를 확보해야 하며 모디 총리는 NDA가 최소 400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거 연합을 구성한 정당의 획득 의석을 더해 겨우 과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결과는 지난 2918년 NDA가 353석, BJP가 303석, 인도국민회의가 52석을 차지했던 총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BJP의 거점이자 기독교 박해의 중심지로 알려진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는 NDA가 80석 중 40석만을 확보했다. 이는 2019년 선거에서 얻은 63석

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윌리엄스 박사는 “우타르프라데시 주민들은 BJP에 그들이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했으며 이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 선거는 출구조사 예상에 훨씬 더 가까워졌고, 야권연합인 INDIA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

기독교 활동가이자 작가인 존 다얄 박사는 CP에 “2024년 총선이 하원 543석 중 400석 이상을 차지하려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오만한 캠페인에 효과적인 제동을 걸면서 남아시아의 안보, 인권, 경제계에 집단적 안도의 한숨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디 총리가 3년 연임할 것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위상은 이전 임기에 비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CP는 “BJP가 집권한 최근 10년 동안 인도에서는 다수의 힌두교 공동체와 소수의 기독교인 및 무슬림 간 긴장이 증가하면서 사회 분열이 심화되었다”고 전했다.

연합기독교포럼(United Christian Forum)에 따르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은 가장 폭력적인 해가 되었다.

기독교인은 인도 인구의 2.3%에 불과하며, 힌두교도는 약 80%를 차지한다. 다얄 박사는 “부활한 인도국민회의가 후진 계층과 달리트를 대표하는 인도 남부, 서부, 북부 지역 정당들과 막연한 정인 INDIA를 결성했다”면서 “이 동맹은 예상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모디 총리의 힌두 민족주의 어젠다가 매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윌리엄스 박사는 “인도 유권자들은 종교적 분열과 증오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다양성으로 통합된 인도의 헌법적 비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합회회칙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며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3부예배(바자세대에)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사명을 밝히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보기도회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말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8층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러닝: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모임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714)853-4030 (담임목사)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사우스베이 지역

“10년 전 이슬람국가 모술 점령... 기독교인들 여전히 지원 필요”

이슬람국가(ISIS)가 이라크 모술의 도시와 니네베 평원을 장악하여 기독교인 수천 명이 두려움에 떨며 떠난 지 10주년이 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1만3천명 이상의 기독교인 가정들이 ISIS의 잔혹함으로 이라크 쿠르드 자치 지역으로 달아났다고 아르빌의 바샤르 와르다(Bashar Warda) 대주교는 말했다. 모술은 도시의 대부분을 폐허로 만든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2017년 해방되었다.

ISIS가 휩쓸고 간 지 10년 만에 국제 원조로 주택 재건이 가능해진 덕에 9천 여가구가 니네베 평원으로 돌아왔다고 대주교는 ACN(Aid to the Church in Need)에 말했다.

그는 “교회가 다시 가득 차고 있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첫 영성체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슬프고 무서운 기억은 모두 여전히 남아 있지만 (기독교인 가정은)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은 현실이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라크를 떠났거나 떠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은 단지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인내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이라크 정치인들에게 기독교인, 야지디족 등 소수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제기독교연대(ICC)는 현재 모술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가정은 약 50가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ICC 직원은 “기독교인들이 모술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 도시에는 도시를 재건하고 더 넓은 니네베 지역의 평화를 추구할 기독교인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도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지난 20년 동안 가능했던 것보다 더 큰 자유와 안정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성인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8: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주재: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삼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장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몰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예배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학교부)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혜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am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막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美 개신교 목회자 대다수 “동성결혼 반대”



©Virgil Cayasa/ Unsplash

미국의 대부분의 개신교 목회자들이 여전히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전에 증가하던 주류 성직자들의 동성결혼 지지 추세도 주춤하고 있다고 라이프 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가 최근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표된 라이프웨이 보고서에서 동성결혼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며, 이 수치는 2019년에 같은 의견을 낸 목회자(24%)에 비해 감소했다.

진보적인 주류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비율은 절반 이하(46%)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과 거의 같은 수치(47%)이나 2010년(32%)보다는 여전히 훨씬 높았다. 스콧 맥코넬 라이프웨이리서치 전무 이사는 보고서에서 “이전의 증가는 주류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그 수준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결혼의 도덕성에 대한 국가 및 사법부 차원의 교단 내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결혼을 지지하는 개신교 목사들의 전체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개신교 목회자 1004명을 대상으로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보고서는 또 복음주의 목회자의 7%만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며,

18~44세 목회자가 65세 이상 목회자보다 동성결혼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했다(27% 대 15%). 또한 정기 참석자가 250명 이상인 교회의 목회자들 중 단 8%만이 동성결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 공공종교연구소(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 PRRI)는 2023년 ‘미국 가치 지도’(American Values Atlas)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도 일반 대중 사이에서 동성결혼과 LGBT 차별 금지 보호에 대한 지지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RRI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공공 시설, 주택에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에 대한 지지가 2022년 80%에서 2023년 76%로 감소했다. 또한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도는 2022년 69%에서 2023년 67%로 줄었다.

PRRI의 CEO인 멜리사 맥맨은 “우리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LGBTQ 권리에 대한 지지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약간 감소했지만,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여전히 LGBTQ 미국인에 대한 차별 금지 보호와 동성 커플의 결혼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당파적 분열이 커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문화 전쟁에서 LGBTQ 정체성과 권리를 분열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계속 사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국제 CCC, 새 총재에 데이비드 로빈스 임명



국제대학생선교회에 신임 총재로 취임한 데이비드 로빈스. ©국제 CCC

세계 최대 선교단체인 ‘국제 CCC’(Campus Crusade for Christ International, 이하 Cru)의 새로운 총재로 데이비드 로빈스(46)가 선출되었다.

국제 CCC는 5일 크리스천포스트(CP)에 보낸 성명에서 로빈스가 오는 7월부터 총재직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빈스는 성명에서 “이 새로운 역할로 전 세계의 신실하고 신앙심 깊은 직원, 자원봉사자 및 파트너들과 함께 이 새로운 역할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 매우 겸손한 마음이 든다”며 “모든 언어, 민족 및 국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위해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CCC는 1951년 빌과 보넷 브라이트가 UCLA 캠퍼스에서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Campus Crusade for Christ, 이하 CCC)’를 창립했으며, 현

재 190개국에서 1만6천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세 최대의 기독교 단체 중 하나이다.

로빈스는 신임 총재로 임명되기 전, 2017년부터 가정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돕는 크루의 사역인 패밀리 라이프(FamilyLife)의 CEO로 재직했다.

또한 이탈리아, 뉴욕시,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크루와 함께 사역하며 전도와 제자 양성에 열정을 보여왔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한편, 국제 CCC의 제3대 총재인 스티브 셀러스는 지난 1월 사임을 표명했다.

셀러스는 성명에서 “저는 거의 50년 동안 이 사역에 헌신해 왔고, 우리 사역의 최고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다”며 “총재로서 봉사한 기간은 저에게 기쁨이었고, 하나님께서 데이비드 로빈스를 통해 우리를 전도와 제자 양성이라는 변함없는 사명에 집중하며 미래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의장은 “차기 총재를 위해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해 주신 전 세계 수천 명의 직원, 자원봉사자, 기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전 세계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인터내셔널, 크루의 신실한 지도자들의 자질과 소명을 목격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교단 탈퇴' 소송 제기한 UMC 앨라배마 교회들 패소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위치한 연합감리회(UMC) 산하의 버밍엄-서던 대학. ©버밍엄-서던 대학 유튜브 캡처

미국 앨라배마 대법원은 동성에 이슈와 관련해 교단 탈퇴를 시도한 연합감리회(UMC) 소속 44개 교회들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앨라배마 대법원은 5월 31일(이하 현지시간) 전원일치로 몽고메리 울더스케이프 연합감리교회 외 43개 교회가 UMC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의 쟁점은 UMC의 교단 탈퇴 절차였으며, 떠나는 교회들은 연회의 절차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문제는 '교회 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수정헌법 제1조의 설립 조항에 따라 세속 법원이 결정할 영역 밖의 것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교회들은 이 사건이 단지 '민사 및 재산 문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판 법원이 주재 권한 부족을 이유로 자신들의 소송을 기각한 것은 실수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교회의 핵심 주장은 전적으로 장정 2553의 해석과 UMC를 떠나려는 그들의 노력이 교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기존의 수정헌법 제1조 법률과 우리의 판례에 따르면, 해석상의 문제는 법원이 결정할 권한이 없는 교회 문제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2019년 총회 특별 회의에서 UMC는 장정 2553항이라는 임시 조치를 추가했는데, 이는 수십년간 이어진 동성에 논쟁에 따라 교단을 탈퇴하려는 교회들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7,500개의 교회가 UMC를 떠났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최근 출범한 신학적 보수교단인 세계감리교회(GMC)에 가입했다.

유엔뉴스(UM News)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4년 동안 앨라배마-서플로리다 연회에 기반을 둔 248개 교회가 공식 탈퇴했다. 이 중 42개 교회는 지난 2023년 10월 "연회가 해산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탈퇴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원고의 의존을 요청한 후, 피고는 이제 해당 계획을 취소하고 교회 건물과 재산을 인질로 잡고 원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탈퇴를 방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은 세속 법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떠나는 회중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원칙과 미국 대법원과 앨라배마 대법원의 오랜 법률 판결과 일치한다"며 "우리는 관련된 모든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 또 세상의 변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마이클 브라운 "팔레스타인, 하마스에서 해방이 급선무"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라디오 프로그램 '라인오브라이어' 진행자인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박사가 '그래, 팔레스타인을 자유케 하라 - 하마스로부터'라는 제목의 칼럼을 크리스천포스트(CP)에 게재했다.

브라운은 칼럼에서 "비극적인 진실은 하마스가 없었다면 가자지구에서 무고한 여성과 어린이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대량학살 혐의가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하마스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의 실제 사상자 수와 관련해 5월 13일에 발표된 내용이 중요하다"며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은 2~3일 간격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지구 상황에 대한 영향을 보고하는데, 지난주 집계를 수정하여 4월 30일 기준으로 약 5000명의 여성과 780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CBC 뉴스의 선임 작가인 니 로건의 말을 인용해 "전체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변하지 않았지만, 3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OCHA는 최소 9500명의 여성과 1만 450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보고했다"며 통계적 오류를 지적했다.

브라운은 "지난달 31일 업데이트에 따르면, 5월 9일 기준으로 하마스가 이끄는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에서 3만 4904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며 "그 직후 이스라엘군은 공습으로 이 지역을 폭격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몇 주 동안 지상 작전을 개시했다"고 했다. 그는 "이는 가자 주민들이 겪고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참혹한 고통을 경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 한순간도 그렇지 않다.

수정된 수치라 하더라도 수천 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려는 것도 아니"라며 "하지만 이러한 수치를 인용하여 대량학살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전혀 대량학살이 아니다. 이러한 수치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운은 "이러한 수치를 더 깊이 파고 들어,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첫째, 하마스가 정확하고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사망자 수를 보고하고 있다. 둘째, 총계에는 어떤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쟁이 없다면 매달 사망자는 약 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들은 사망자 중 하마스 조직원이 몇 명인지 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마스 조직원을 약 1만 5000명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실제로 여성 및 어린이 사망자 수보다 많을 것이며, 민간인 사망률이 1대 1 정도로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전투의 어려운 특성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민간인 사망률이며, 이스라엘 군인의 약 20%가 아군의 오인 사격에 의해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요점은, 복잡한 도시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실수로 아군을 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하마스가 민간인 사이에 숨어 있을 때, 교회에 피신한 기독교인과 구호 활동가를 포함한 무고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대량학살이 아니며, 지금도 이스라엘은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것은 전쟁의 대가이며, 이는 확실적이고 야만적인 도발자인 하마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화) 새벽예배 오전 5:20(화)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6: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아기배움) 오전 11:00 영아부예배(맘을채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수요기도회 7:30PM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금요일(월) 새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 오전 9:00 EM예배 (2부) 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월례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1:30 금요일(월) 새벽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OC예배 오후 7:30 수요일(월) 오후 7:30 토요일(토) 오후 8:00(200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주일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주일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9:45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목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7:00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교회 동시통역) 주일저녁전야예배 오후 7:00 금요일교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Ln,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joeunchurch.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능
·아시아미용기술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갈비,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문의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합술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D3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합술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하여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리아 토마스가 성전환 전 남성 수영경기에 출전했던 당시의 모습(왼쪽)과 여성으로 성전환한 뒤 경기에 출전한 최근 모습. ©페이스북

美 대학부 성전환 수영 선수, 여자부 경기 출전 금지돼

미국에서 비수술 성전환 수영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이 금지됐다.

12일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미국의 성전환 수영 선수인 리아 토마스(25·미국)가 여자부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스포츠중재 재판소(CAS)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CAS는 "토마스는 국제수영연맹이 만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토마스는 현재 미국수영연맹 소속 회원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토마스는 제도가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 '비엘리트 부문' 경기에만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마스는 국제대회 뿐 아니라 미국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엘리트 부문' 여자부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으며,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도 불가

능해졌다.

리아 토마스는 2017년부터 남 성팀에서 수영 선수로 활동하다 2019년 호르몬 요법을 통해 비수술 성전환 후 여성부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남자 선수시절 나이별 미국 랭킹 400위권이었던 토마스는 여성부로 출전한 2022년 3월 미국대학선수권 500야드(457m) 자유형 부문에서 우승하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토마스는 2020도쿄올림픽 여자 400m 개인혼영에서 은메달을 딴 엠마 웨이언트보다 1초 75 빠른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동시에 여성 대학 선수들을 중심으로 토마스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펜실베이니아대 여성 수영팀 출신 폴라 스캔런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를 위한 젠더 공정 치료' 청문회에서 "저와 동료들은 키 193cm에 남성 생식기가 있는 토머스 앞에서 일주일에 18번씩

나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다"며 "어떤 여학생들은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옷을 갈아 입었고, 또 다른 여학생들은 가족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제수영연맹은 2022년 6월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며 규정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선수의 여자부 출전에 대해 남성 호르몬 수치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 여자부 경기 출전이 가능했다.

이에 토마스가 국제수영연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CAS는 연맹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제수영연맹은 성명을 통해 "여성 스포츠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우리 연맹은 모든 선수가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얻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선 기자

“폭력 사태 직면한 터키 개신교인... 2023년에도 여전히 계속돼”

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의 개신교인들은 2023년에도 신앙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계속 박해에 직면했다.

현지의 개신교회협(Protestan Kiliseler Derneği)가 6월 4일(이하 현지시간) 발행한 '인권침해보고서 2023'에 따르면 서면 및 구두 증오 표현 사건과 일부 폭력이 모두 보고되었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전했다. 205개 개신교 교회 중 일부는 모두 독립적이거나 친교 집단에 속해 있으며 교회 건물에 대한 반대에 직면했다. 보고서는 또한 사역 지도자 훈련에 대한 법적 권리가 거부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협회는 "2023년에도 기독교인이 사역자들을 훈련할 권리에 진전이 없었다"라며 "많은 외국 교회 지도자들이 추방되거나, 터키 입국이 거부되거나, 거주 허가를 갱신하는 데 문제를 겪었다"고 했다. 기독교 교육과 사역 훈련은 공식적인 반대 때문에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터키의 법률이 기독교 성직자를 훈련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종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개교를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 지도자를 훈련하고 발전시킬 권리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의 초석 중 하나"라고 했다. 개신교는 학생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해외 지도자를 초대하여 터키 기독교인을 훈련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 문

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2023년에도 해외 사역자들과 신도들이 추방되거나 입국이 거부되거나 체류 허가 및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를 계속해서 목격했다"라며 "많은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종교 사역자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했다.

개신교인이나 기관은 신앙에 근거해 혐오범죄나 그에 따른 신체적 공격을 경험했다. 보고서는 "2023년에도 예배 장소 설립 요청, 예배 시설 지속 사용 요청, 기존 교회 건물 사용 신청과 관련해 문제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기독교인들이 신체적 박해를 받은 여러 사건이 나열됐다. 지난 11월 6일 에스키셰히르 지역의 한 예배에서 폭력배가 설교하는 목회자를 폭행한 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관대한지 시험하고 싶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지만 평가를 위해 지역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협회에 따르면 목회자를 불태우겠다고 위협한 두 사람이 '협박 행위' 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지난 11월 25일 가해자들은 에스키셰히르 테페바시(Tepebasi)에 있는 교회 건물에 강제로 진입했다. 보안군은 "대중에게 증오와 적대감을 선동하고, 두 사람 이상이 집단으로 행동하도록 위협하고, 무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여 직장 면책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두 사람을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스탄불의 위스퀴다르 지역에서 유라시아 개신교 교회 재단은 지난해 5월 2일 신원을 알 수 없는 행인이 폭력적인 언어로 소리를 지르며 입구 문에 계란과 동전을 던졌다고 보고했다.

2023년 6월 5일 카예리 지역에서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의복을 세탁하는데 사용되는 교회 시설의 창문이 돌에 맞아 손상됐다. 지난 12월 3일에도 아시아주에서는 범인이 예배 도중 교회에 돌을 던졌고,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계속됐다. 경찰은 그를 체포했지만 교회는 사과를 받고 고소를 철회했다.

보고서에는 언어 폭력 사건도 기록됐다. 2023년 1월 28일, 장례식장에서 한 여인이 교회 지도자와 그 가족, 성도들을 상대로 거짓 고발을 했고 관리들이 개입해 그녀를 질책했다.

2023년 2월 6일 터키 지진 이후, 2월 28일 구호 활동 중 종교적 복장을 한 사람들이 하타이(Hatai) 지역의 한 교회가 설치한 야외 주방을 조종했다. 보고서는 "지역 대중과 관리들이 교회의 봉사에 감사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28일 마르딘(Mardin) 지방에서 또 다른 목회자가 표적이 됐다. 한 지역 신문은 목사와 관련 없는 사기 사건기사에서 그의 사진을 유명한 사기꾼의 사진으로 바꿨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유진 기자

크리스천이 본 젠더

머니 교수의 실패한 젠더 실험



민성길 교수
연세의대 명예교수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젠더 개념은 1950년대 성학자 존 머니(John Money, 1921-2006) 교수가 처음 제시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간성(intersex)을 가진 어린이에 대한 성전환(확인) 수술이 널리 시작되고 있었는데, 머니 교수는 존스홉킨스의과대학 정신과에서 간성환자의 수술 전 심리평가를 담당하고 있던 임상심리학자였다. 그는 당시 “생물학적” 성에 대비되는 “학습되는” 젠더 정체성 개념을 제안하고 있었다.

브루스 리머(Bruce Reimer)라는 이름의 남아아가 1965년에 태어났는데, 생후 8개월 때 불행히도 포경수술의 부작용 때문에 음경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생겼다. 부모가 성전문가 머니 교수에게 상담을 하였을 때, 그는 이참에 아예 성전환수술을 해 주자고 부모를 설득하였다. 그는 이 기회를 의학적 기술로 생물학적 성을 반대인 젠더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할 하나의 실험으로 생각하였다.

리머가 생후 22개월 되었을 때 브루스의 “정상적”인 음경과 고환이 제거되고 여자 성기 모양이 성형수술로 만들어졌다. 어른들은 브루스에게 브렌다(Brenda)라는 이름을 주고 여자아이로 키웠다. 그 소년은 자신이 여자인 줄 알고 자랐다. 브렌다는 사춘기에 이르러 성호르몬을 투여받아 유방도 커졌다.

머니 교수는 성전환 수술 이후 10여년간 브렌다와 그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인 브라이언이 성장하는 과정을 비교 관찰하였다. 그 두 어린이는 일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에 유전자가 같았고,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랐고, 같은 집안에서 양육되었으므로, 완벽한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머니 교수는 정기적으로 두 쌍둥이를 검진하면서, 다수의 논문을 통해 “정상” 아동에서 성전환수술(transsexual operation)과 양육으로 젠더가 바뀔 수 있음(gender fluid)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쌍둥이는 학계와 일반인들 사이에 “John/Joan case”로 알려졌다. 브렌다는 머니와 더불어 TV 등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이러한 성공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성기 장애가 있는 소아들에 대한

성전환수술이 널리 이루어졌다. 그러나 브렌다가 나중 고백하기를 그는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젠더불쾌증(젠더 정체성 성장에 또는 트랜스젠더, 즉 자기 몸은 여자라고 하는데, 여자 같지 않다는 느낌)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춘기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남성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브렌다는 남자 같은 행동 방식을 보임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자신의 성(젠더) 정체성에 대해 혼란에 빠졌다. 부모는 브렌다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 주었다.

15세가 된 어느 날 아버지가 머니 교수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브렌다에게, 정신과의사의 조언에 따라, 과거 출생과 수술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브렌다는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도로 “남자”로 살기로 하였다. 그는 이름을 다시 데이비드로 바꾸었고 여성 호르몬 투여를 중지하였다. 그는 남성호르몬을 투여받으면서, 유방을 제거하였고 음경 성형술을 받았다. 25세 그는 세 아이의 여성과 결혼하였다.

머니 교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32세 때 데이비드는,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수술을 받음으로 자신처럼 겪게 될 고통스러운 후유증을 차단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유명한 하와이대학의 성심리학자인 밀턴 다이아몬드(Milton Diamond) 교수에게 자신의 과거 비밀을 공개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1997년 Rolling Stone 잡지에 실림으로 전 세계에 폭로되었다. 머니 교수의 연구의 거짓됨은 국제적 스캔들이 되었다.

추가적인 폭로도 있었다. 데이비드는 어렸을 때, 머니 교수가 데이비드의 쌍둥이 형제인 브라이언과 서로 음부를 노출하고 서로 간에 성교하는 행동을 흉내 내도록 강요하였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그런 장면을 주변 연구원들이 관찰하게 하였고 사진까지 찍게 하였다고 폭로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머니 교수는 “건강한 성인 젠더정체성”의 발달을 위한 치료방법으로 “소아기 성적 연습 놀이”(childhood sexual rehearsal play)를 시켰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그런 경험은 고문 내지 학대였다고 주장하였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이는 분명한 소아성학대이다. (그즈음 알프레드 킨제이와 빌헬름 라이히도 어린이에게 성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성적 자극을 하는 학대를 하였다는 폭로가 있다.)

쌍둥이 형제 브라이언은 성인이 되었을 때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았다고 하는데, 결국 36세에 자살하였다. 데이비드도 우울증을 앓았고 부부불화가 겹쳐 38세에 자살하였다. 리머 형제의 부모는 리머 형제의 불행을 머니 교수의 성적 학대 때문이라 비난하였다.

교회음악 이야기

평안의 찬송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지난주 중 필자는 이스라엘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어느 선교사 가족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영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무역계통 회사에 일을 하다 히브리어를 전공한 그의 아내를 만나 이스라엘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동안 두 자녀를 낳아 10년 가까이 복음을 품고 그곳에서 사는 그들 모습 속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평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 가족은 부부가 서로 돌아가며 학생비자를 갱신해서 신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은 현지에서 관광가이드가 생길 때 그것으로 돈을 벌고 또 그들의 가족이 유학 학비를 도와주어 그 도움으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선교사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한인언커녕 아시안 타민족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선교사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주제로 하는 전통 찬양을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표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그들 사역의 중심이라고 그 선교사는 힘주어 말합니다.

필자는 이 선교사 가족과 짧은 식사 만남이었지만 그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내면이 참 평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찬송가에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평안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곡은 “내 영혼 평안해(He is well with my soul)”라는 찬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호라티오 스페포드(Horatio Spafford(1828-1888)는 19세기 중반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이자 시카고 대학 병리학 교수,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예나는 1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낳고 교회에서 자선 활동과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성홍열로 네 살 된 아들을 잃으면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 소유 재산의 대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들은 1873년 다시 비극이 닥칠 때까지 2년을 버텼습니다. 고통을 만회하려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스페포드는 가족과 함께 갈 계획이었지만 예기치 않은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카고에 머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어 가족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에 1873년 11월 21일, 프랑스 원양 정기선인 빌 뒤 아브르호

(Ville du Harve)가 스페포드 부인과 네 딸을 포함, 313명의 승객을 태우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배와 충돌하여 226명의 승객이 익사하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스페포드의 네 딸은 모두 익사하고 그의 아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구원받았습니다 (Saved alone, what shall I do?)”라는 문구가 적힌 짧은 전보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소식을 접한 후 호라티오는 사고가 난 사흘 후 사고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딸들을 잃은 깊은 슬픔에 마음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 상실 가운데서도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평강에 영감을 받아 찬송가 “내 영혼 평안해”의 가사를 썼습니다. 많은 비통한 노래와 달리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복음으로 인한 소망, 그리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를 되뇌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고통을 저항하며 평화를 만들려는 모습이 그의 글에서 역력히 보입니다.

이 찬송시를 쓴 스페포드는 무디 선생님께 보내어졌고 그것이 결국 당시에 유명한 찬송 작곡가 필립 폴 블리스(Philip P. Bliss, 1838-1876)에게 전달되어 유명한 찬송이 만들어져 불리었습니다.

필자는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다를 통해 찬양자의 저자 스페포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9편의 결론으로 자연의 모든 현상을 여호와와 소리로 이해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호라티오 자신도 분명히 믿고 신뢰하였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선교사 가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전해야 하는 평안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외침이 비록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시 간담비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 그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은 그렇게 선을 베푸는데 세상은 왜 그토록 더 악해져만 가지요?” “그러자 수녀님은 그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갠지스강에 한 컵의 물을 떠내면 그만큼 갠지스강의 물은 줄어든 겁니다”

이스라엘 그 선교사 가족이 헌신하고 있는 그 수고가 모든 환경이 복음을 전하기에 사방이 막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외쳐도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 허공을 치는 듯한 외침일 지라도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 한 가족이 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지역에 기독교 인구가 더해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고 사역하는 모습 또한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땀뻘 흘리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찬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01
눈 건강
눈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께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01
간 건강
간건강 가득 밀크씨슬
\$14.90 ▶ **\$11.90**



02
간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03
간 건강
CMG 간N 밀크씨슬
\$27.90 ▶ **\$23.90**



04
간 건강
간에는 밀크씨슬
\$21.90 ▶ **\$18.90**



05
위 건강
위건강
\$18.90 ▶ **\$15.90**



06
신경을 위한 건강제
신경엔 마그네슘
\$19.90 ▶ **\$16.90**



07
항산화엔 비타민 D
비타민D 4000IU
\$13.90 ▶ **\$11.90**



08
항산화엔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D 가득
\$15.90 ▶ **\$12.90**



09
항산화엔 비타민 D
CMG 항산화 비타민 D
\$18.90 ▶ **\$15.90**



10
피부 보습
수분가득 히알루론산
\$19.90 ▶ **\$15.90**



11
관절 건강
CMG 프리미엄 보스웰리아
\$17.90 ▶ **\$14.90**



12
홍삼 10ml x30
한국 홍삼 퓨어 데일리 스틱
\$100.00 ▶ **\$89.00**



J1 MART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SCAN ME

목회 칼럼

여호와와 열심이 이루시리라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올해의 성경암송이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세계최대의 도시 바벨론을 건설하고 세계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되어 질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신비하고 놀라운 꿈인데도 생각이 안 나고 해석이 안 될 때 다니엘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보며 다니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10년쯤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교만해져서 자기를 위한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잘되고 평안함이 마치 자기 힘으로 된 것인 줄로 착각하여 교만해진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은 결국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약한 소년에 불과한 그들은 왕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니 하나님은 주시는 위대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99% 순종하다가 1% 순종하지 못하면 타협하고 넘어집니다. 오직 100% 순종만이 끝까지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직 100% 순종만이 끝까지 이기는 믿음인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8장에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는 말씀이고, 씨가 떨어지는 밭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4가지입니다. 말씀은 다 뿌려지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길가나 돌밭에서는 열매 못 맺습니다. 가시떨기에서는 도저히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이사야5장을 보면 하나님이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사5:2) 그래서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직접 극상품 포도를 맺겠다는 의지를 증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9:7)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밭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여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럽고 좋은 마음 밭이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앞둔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100%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좋은 밭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위대한 역전승의 믿음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김한요 칼럼

책쟁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골든-콘월 신학교에 데이비드 고든 교수의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하니까?』(Why Johnny Can't Preach: The Media Have Shaped the Messengers)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 수업에서도 추천 도서 리스트에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설교자의 영성이 현재 미디어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할 설교자들도 점점 책쟁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성인들의 주의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도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 때문이며, 현대 성인의 집중력은 1940년대 살배기 아이의 주의력 정도라고 지적합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져도 참지 못

하고, 금세 지루해 한다고 합니다.

책을 다시 손에 잡으십시오. 경건한 서적과 우리의 지적 상상력과 차분한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책들을 읽으십시오.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논리적인 사고의 근력을 키우는 독서를 합니다. 고전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다 아는데, 그 누구도 읽지 않은 것이 고전이라고 하는데, 한두 권이라도 손에 들고 차근차근 읽어갑시다. 독서를 회피하는 습관이 성경을 읽지 않는 나태함으로 변질 수 있습니다.

책쟁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눈이 멀는 길로 가지 않도록, 성경책을 다시 가지고 다닙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는 것을 반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지 않는 세대가 주의력을 잃어버리고 30-40분의 설교도 집중할 수 없다면 그 부작용은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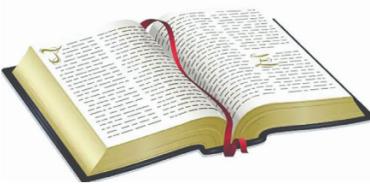
지난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통 방법은 '설교 강단'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설교 강단을 통한 하나님의 뜻 전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AI가 나와도 설교 강단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의 미련한 것"이 그런 의미라 생각합니다. 전도 즉 설교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 설교 강단을 통하는 것이 요즘 미디어 시대에 미련하다 느낄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 하셨습니다"(고전 1:21)

오늘도 우리는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최고의 웅변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설교자를 통해 때론 지루하고, 때론 답답해도 여전히 말씀 선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교 강단은 재미있는 영화나 감동 있는 연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가주 단신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 말씀축제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이요셉 목사, 2630 Townsgate Rd A, Westlake Village, CA 91361)에서 6월 14일~16일(금~주일)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여름 말씀 축제를 진행한다.

노진준 목사(순회 설교자, 설교 코칭 미니스트리 PCM 공동대표)가 강사로 선다. 일시 6/14(금) 오후 8시, 6/15(토) 오후 7:30, 6/16(주일) 오전 10시

한인기독합창단 40주년 기념 연주회

한인기독합창단(단장 김은영)의 창단 40주년 기념 연주회 멘델스존의 "엘리아"가 6월 15일(토) 저녁 6시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공연문의: 213-503-0812, contact@kccsca.org.

평강교회, 유튜브 '찬양 쇼츠' 공모

남가주 패사디나에 있는 평강교회(담임 송금관 목사)가 찬양 쇼츠(Shorts) 공모한다.

연령 제한이 없으며 직접 부른 60초 미만의 세로형 동영상상을 찍어서 평강교회 이메일(pyongkangch@gmail.com)로 보내주면 된다. 접수기간은 6월 23일(주일)까지이며 내부 심사 및 SNS 조회수와 반응 점수를 합산해 결과를 7월 11일(목)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상금은 최우수상(1명) \$300, 우수상(2명) \$100 문의: 213-393-9136 / 661-600-5877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례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ACS 인증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AACS 인증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ACS 인증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ACS, ATS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넘치는 사랑 감사입니다

언제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오래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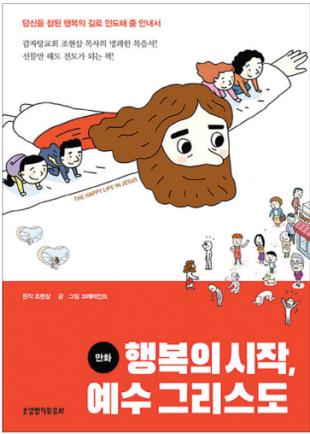
소중한 나의 부모님의 건강은 크고 튼튼한
서울 메디칼 그룹의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한인 의료진들이
30년 이상의 노하우로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영원한 행복 시작, 예수님 만남부터

이 시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잘 어울리는 전도지



만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조현삼 | 크레마인드 그림 | 생명의말씀사 | 208쪽 | 17,000원

‘감자탕교회’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서울광영교회 조현삼 목사의 저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만화로 재탄생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믿음을 위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책이다. 읽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책을 만들고 싶었던 저자의 오랜 소원이 담긴 책이다

전도를 품고 있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 책은 희소식이다. 성경의 핵심 진리를 만화로 더 상세하고 쉽게 펼쳐 놓은 이 책을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될 테니 말이다. 아울러 신앙생활은 하지만 최악 된 세상 가운데 살기에 마음에 행복이란 단어와 가깝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을 상기시켜 주는 책이 될 것이다

‘감자탕교회’로 알려진 서울광영교회 조현삼 담임목사는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전도에 열정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도지를 만들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도 책자였다.

믿음이 없는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읽기만 해도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한 예수님 중심적 전도지를 책으로 출간하기까지 했다. 그 책이 만화로 나온 것이 바로 <만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다(생명의말씀사, 2023). 기본적인 내용(글)은 조현삼 목사가, 그림은 크레마인드라는 팀이 그렸다. 최근 <만화 액티비티 성경>을 만들고, <만화로 보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와 <만화 한눈에 읽는 교회사> 등으로 세련되고 재미있게 내용을 잘 담아내는 실력을 보여준 팀이다.

<만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복음 교리를 잘 담아내고 있다. 믿지 않는 독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많은 경우 복음의 중요한 교리를 배제하고 순수 인문학적 접근으로 인생의 의미를 밝히거나 교회가 줄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라는 예수님 없는 복음을 선포하는 책이 생각보다 많다.

복음 교리를 거의 모르는 사람에게 생소한 개념을 쏟아붓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선포한 복음과 이방인에게 전달한 복음은 내용에서 다르지 않지만, 분명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에 관하여 독자가 그려내고 상상하는 형상을 받아들이고 숭배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구원자로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복을 받고 잘되기를 바라며 예수라는 우상을 섬길 수

도 있다.

그런 면에서 <만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책이다.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낸 후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을 통해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한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다.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효력을 발휘하신 ‘일’에 집중하기보다, 그 일을 행하신 ‘분’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이지만, 죄 사함의 결과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빠지면 죄 사함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책이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고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만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보다 깊은 교리가 담겨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인간론,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신론,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독교론, 죄 사함을 받고 영벌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며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거룩하게 살아가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구원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거룩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종말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교회론 등이 만화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된다.

가독성을 위해 성경의 장절 표시를 생략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 성경을 거의 모르는 사람에게 장절 표시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한편 성경을 더욱 알고 싶어서 찾으려고 할 때는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여튼, 교리적으로 풍성한 가르침을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픽사베이

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전도지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과거 사용했던 전도지는 한 페이지 분량의 짧은 복음적인 글과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을 내 그 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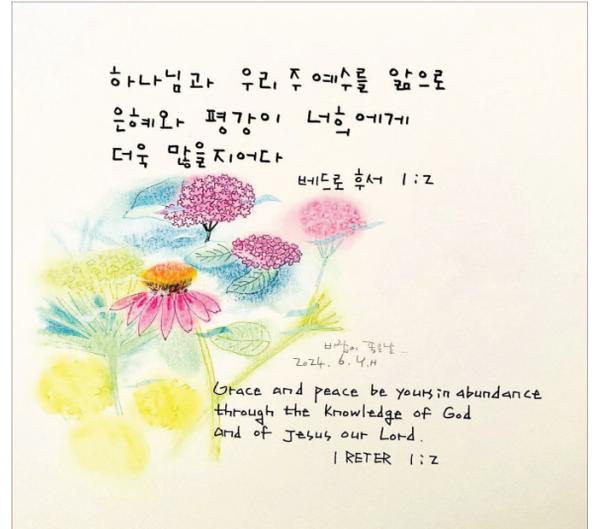
바쁜 현대인들은 그 정도의 시간을 내기도 힘들어한다. 아무리 짧아도 글보다는 동영상에 익숙해져 있다. 젊은 세대는 검색엔진으로 지식을 찾아 읽어보지 않고, 영상을 찾아 본다. 그래서 만화로 중요한 교리를 담아 소개하는 일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만화 행복의 시작, 예

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잘 해낸 것 같다. 중요한 복음 교리를 잘 담아 내 보고 듣는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시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잘 어울리는 전도지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성령께서 똑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내주게 하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다.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된 행복을 시작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명희 권사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싱싱 톡톡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사역자 청빙

워싱턴주 (WA), 레이스 (Lacey)에 위치한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전임(Full-time)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부서: 행정 및 Youth Group 전임 부목사(Full time)

- 지원 자격**
 - (1) 신실하게 팀 사역하실 목회자, 정규 신학교 졸업자 (M. Div)
 - (2) 이중언어 가능하신 분 (Youth Group 담당 경험에 있으신 분)
 - (3) 교회 교구사역 및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
 - (4) 미국에서 거주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지원 서류**
 - (1) 이력서(가족사진), 자기 소개서 및 신앙 간증문
 - (2) 최근 설교 영상 또는 설교 영상 링크
 - (3) 신학교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 (4) 추천서 (목사·2인): 목회자 2인 중에서 현재 혹은 이전에 섬긴 교회의 담임목사
- 서류제출 및 마감**
모든 서류를 ocpc91@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자: 사역자를 구할 때까지
- 문의 허재영 목사:** T.(253) 282-2322, 저희 교회는 KAPC에 속한 교회로 홈페이지를(www.kocpc.org)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Olympia Central Presbyterian Church
7241 Pacific Ave. SE, Lacey, WA 98503
Website: www.kocpc.org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1)

<퓨리오사>, 성경 인유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대명사



<매드 맥스> 시리즈의 맥을 잇는 스피노프 신작,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퓨리오사, 아담과 하와 재구성
할리우드나 넷플릭스 작품들,
성경 기피하거나 적대하던 중
성경 기사와 인물 반영 반가워**

◆영화 속의 종말: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서사 공식 정립한 <매드 맥스> 시리즈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1979년 처음 개봉된 <매드 맥스> 3부작의 스피노프 작품이다. <매드 맥스> 시리즈의 소프트 리부트 작인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가 2015년 개봉된 후 9년 만에 관객에게 선보인 작품으로, 개봉 전까지 이 시리즈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영화가 개봉된 현재 이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다. 시리즈 설정을 훌륭하게 이어받은 진중한 서사에 주연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인공인 퓨리오사(안야 테일러 조이분)의 연기도 좋지만, 그보다 메인 빌런 디멘투스 역을 맡은 크리스 험스워스의 연기가 크게 돋보이는 작품이다. 역시 영웅에 관한 전설을 그리는 영화에는 치가 떨리도록 악독하면서도 입체적인 성격을 지닌 매력적인 악역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매드 맥스> 시리즈는 인류가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식수, 그리고 에너지 자원을 두고 벌인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인해 과거 문명이 거의 궤멸 수준으로 파괴되고, 소수 생존자들만이 살아남아 처절한 혈투를 벌이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를 배경으로 삼는다. 정부 체계는 모두 붕괴되고 강력한 군사력과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을 확보한 독재자들이 여기저기 무리를 이루어 군용할거하는 시대상이 펼쳐진다.

1979년 <매드 맥스> 1편이 개봉되기 전

에도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를 배경으로 삼는 영화는 여럿 존재했다. 하지만 <매드 맥스> 시리즈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서사 및 설정 공식을 정립한 작품으로 명성을 떨쳤다. 사막 지형, 가죽 자켓, 기괴하게 개조된 바이크와 자동차를 활용한 추격전 같은 설정은 이후 수많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영화나 드라마에서 오마주됐다.

이번에 개봉한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역시 시대 및 공간배경 설정에 있어 시리즈 전체 설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권력에 미쳐버린 군벌 부족들과 달리, 그나마 과거 문명의 유산이 살아남아 있는 곳 '녹색의 땅' 혹은 '풍요의 땅'이라 불리는 곳에서 자란 어린 소녀 퓨리오사는 그곳을 염탐하던 바이커 갱단들에게 붙들려 가고, 그런 퓨리오사를 찾아 바이커 갱단을 추적하던 퓨리오사의 어머니는 그들의 수장 디멘투스에게 살해된다.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어머니의 원수이자 독재자 디멘투스의 무리에서 성장한 퓨리오사는 출중한 전투력과 치밀한 계획을 앞세워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디멘투스를 처단하는 데 성공한다. 이렇게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해당 작품 자체로만 본다면 통쾌한 복수극으로 끝나지만, 그렇다 해서 퓨리오사 본인과 인류의 처지가 크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인류는 원초적 폭력으로 점철된 생존 경쟁의 굴레 아래에서 고통받고, 과거 문명을 복원할 희망은 점점 더 멀어져 가만 한다. 퓨리오사 개인 입장으로도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다. 디멘투스를 처단했지만, 그녀의 또 다른 적수가 되는 임모탄 조를 상대해야 하는 앞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속 성경: 대중문화계에 큰 영감을 준 성경적 모티프와 인간 이해 <매드 맥스> 시리즈 모든 작품은 조지 밀

러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호주 태생의 밀러 감독은 정형외과 의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가 처음 <매드 맥스> 시리즈를 발표했던 1979년은 아직 미국과 호주 사회 모두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이 대중문화계에서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던 때였다. 당시는 아직 냉전 시기이다 보니, 마르크스주의 반종교사상으로부터 기독교 신앙과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서방 자유진영 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류 문명의 종말이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니, 당연한 듯 성경 일화들이 작품 설정과 서사 속에 직접적으로 반영됐다. 인류 멸망 이후 지구의 풍경이 척박한 사막 지형으로 변한다는 설정은 성경에 등장한 고대 근동 지역의 자연환경, 특히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배회했던 아라비아 사막의 이미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막에서 서로 생존을 위해 혈투를 벌이는 갱단 무리의 설정은 성경 속 사막 지역에서 자주 소규모 전쟁을 벌이던 부족국가들의 모습을 빌려왔다.

성경에 기록된 고대 근동 지역의 삶의 조건을 연상시키는 <매드 맥스> 시리즈의 이런 설정들은 단지 성경으로부터만 빌려온 것은 아니다. 사막 지역에 대한 유럽인들의 좋지 않은 인식은 중세 유럽사를 통해 더 강화된 면이 있다. 중세 유럽은 훈족이나 마자르족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세를 키운 유목 민족의 침략, 그리고 이슬람 제국(우마이야 왕조, 압바스 왕조)의 침략에 계속해서 시달렸다. 이런 경험 때문에 유럽인들은 문명에 위협이 되는 야만인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사막에서 부족생활을 하며 말을 잘 타는 유목 민족을 떠올리게 되었다.

비슷하게 과거 한반도나 중국에서는 야만인이라 하면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만주 등지에서 세력을 키운 흉노, 말갈, 거란,

몽고, 여진족을 떠올리곤 했다. <매드 맥스> 시리즈 원 주인공 맥스 로카탄스키의 행적 역시 다분히 성경적 인물의 이미지, 특히 아브라함의 이미지가 짙게 반영돼 있다. 맥스는 원래 문명 사회의 경찰관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인류 문명 붕괴와 폭주족 범죄자들의 공격 때문에 황폐화된 사막을 떠돌아다니며 악을 응징하는 영웅의 길을 걷게 된다. 이는 풍요로운 도시국가 우르(Ur)의 주민이었다가 척박한 사막 지역을 돌아다니는 나그네로 변모한 아브라함의 삶을 연상시킨다.

이번에 개봉된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매드 맥스> 시리즈 전체에서 처음으로 맥스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인유(allusion)는 계속된다. 맥스가 아브라함의 영화적 재현이라면, 퓨리오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여자의 영화적 재구성이라 볼 수 있다. 지구 전체가 황폐화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녹음이 우거지고 농경이 가능한 땅,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뒤 고난과 좌악이 가득한 사막에 정착해야 했던 퓨리오사의 삶은 아담과 여자의 실낙원 기사를 연상시킨다. 이는 미국의 기독교 언론 '크리스천리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의 영화 평론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최근 할리우드나 넷플릭스에 의해 제작된 작품들 대부분이 성경 모티프를 기피하거나 적대시하는 와중에, 이번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반감게도 성경의 기사와 인물들을 적극 인유해서 대중문화 속에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매드 맥스> 시리즈 최초 개봉 시기가 아직 서구 대중문화계에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었던 1970년대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리즈가 당시 서사 설정을 유지하는 한, 후속편 역시 성경적 모티프와 인간 이해를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메인 빌런 디멘투스(크리스 험스워스 분)와 그의 수하들.

Multi-Function Printers

KONICA MINOLTA bizhub

2024 SPECIAL PROMOTION

개척교회를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개척교회의 칼라복사기 비용을 40~60% 절약할 수 있는 기회!
 2024년 개척교회를 위한 칼라복사기 스페셜 프로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10년미만된 개척교회를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기존교회들은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복사기의 옵션, 모델, 사용량, 렌탈 기간에 따라서
Special discounted price가 결정되며 교회들의 렌탈가격은 모두가 다릅니다.

텍스트로 본인의 성함과 교회명을 남겨주세요.
 전화드리고 간단 명료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213 705 7778(KOR)
TEL: 213 999 7995(ENG)
213 663 8970(ENG)
 greenmwild@gmail.com

GREEN M.WILD IMAGESYSTEMS
 본사는 기독교일보 공식 후원업체입니다

美 남침례회 전 총회장 “여성 목사 안수 영구 금지, 소수 교회 출혈 초래”

미국 남침례회(SBC)가 여성 목사 안수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교단 전 총회장인 J.D. 그리어 목사가 “현명하지 못하고 불필요하다”고 비판하면서 소수 교회의 출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SBC 총회장을 역임한 그리어 목사는 최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 개정안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협력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 때문에 이 개정안에 여전히 확신을 갖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시스템을 뒤집는다. 신학적 문제에 있어서 온건하다는 이유로 개정법에 반대하지 않는다. 보수 진영의 부활 이후 우리 총회를 특징지어 온 선교적, 협력적 균형이 곧 뒤집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했다.

‘침례교 신앙 및 메시지(BFM) 2000’에 따르면 목사란 ‘목사직을 수행하고 목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메시지의 제 6조는 “성경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이며 집사직은 남성과 여성 모두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지만 목사직은 성경에 의해 자격을 갖춘 남성으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2023년 6월 SBC 연차 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SBC 헌법 개정안이 1만2천

명 이상의 대의원으로부터 약 80%의 표를 얻어 통과됐다. 버지니아 주 알링턴침례교회 마이크 로 목사가 제안한 이 개정안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시작된 SBC 총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으면 영구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지난해 이 개정안에 대한 투표는 여성목사 안수를 허용한 릭 워렌 목사의 새들백교회를 제명하는데 88%의 총대들이 투표한지 몇 시간 안에 이뤄졌다. 여성 목사가 있다는 이유로 펜 크릭 침례교회(Fern Creek Baptist Church)도 92%가 찬성해 제명됐다. 지난해 총회에서 대의원 10명 중 9명은 여성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제명하는데 투표했다. 그리어 목사는 교단 내 여성들이 목사로 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SBC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플로리다 주 잭슨빌에 소재한 제일침례교회의 담임목사인 헤스 램버트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램버트 목사는 교회 웹사이트에 공유된 문제에 대한 글을 통해 “법 개정안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진짜 문제는 성경이다. 성경은 목회자의 직분은 자격을 갖춘 남성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디모데전서 2장 11-12절, 3장 1-7절, 디도서 1장 6절을 인용했다. 램버트 목사는 바트 바버 현



J. D. 그리어 목사. ©크리스천포스트

총회장을 비롯한 일부 SBC 지도자들이 개정안이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새들백교회의 여성 목회자 고용 문제로 촉발된 논란 때문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램버트 목사는 “일부 지도자들이 BFM과 SBC 헌법에서 요구하는 목사직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명확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 혼란을 표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리어 목사는 수정안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견은 지역 교회의 자율성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 특히

소수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리어 목사는 “법 개정안이 현명하지 못하고 불필요하며 상당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 이에 반대하는 우리 대부분에게 이 문제는 보안주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침례교의 협력 원칙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다.

NAAF는 남침례회에 소속된 4천개 이상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네트워크 회장이자 캘리포니아 메니피에 있는 뷰 교회의 담임인 그레고리 퍼

킨스 목사는 2023년 7월 바버 총회장에 보낸 편지에서 “교단과 신학적 일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흑인 남침례교 교회가 남성 담임 목회자의 지도 하에 여성에게 ‘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퍼킨스 목사는 “SBC의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2000’에서 ‘목사의 직분은 성경에 자격을 갖춘 남성에게만 제한된다’고 명시했지만 교회에서 여성이 ‘목사’라는 칭호를 갖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많은 흑인 남침례교 회중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윤준 기자

105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한동대에서 특강 진행

한동대학교와 유엔아카데미인팩트 한국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제4회 전인적세계시민위크에서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가 ‘미래를 바꾸는 리더십,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글로벌 시민을 위한 지혜를 나누다’라는 주제로 지난 3일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행사에는 한동대 교수 및 학생 약 300명이 참석했다.

김형석 교수는 1920년 평안북도 운산군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작가이다. 105세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생 동안

그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서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해왔다. 이날 105세의 김 교수는 20대의 대학생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평생 타인의 인생을 보거나 타인의 인생을 좇으며 살게 될 것”이라며, 50대, 60대가 되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사람은 아는 만큼 일할 수 있으며, 인격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인간 관계를

통해 인격을 키우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학문을 탐구할 것을 강조했다.

특강에 참석한 한동대학교 이은광 학생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경쟁을 위해 공부를 했지만, 대학생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의 태도가 나 자신과 사회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달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동대학교는 글로벌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유엔아카데미인팩트 한국협의회와 함께 2016년부터 세계시민위크를 개최해 왔다.

장요한 기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특강 진행 사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소그룹 평신도 리더십부터 세워야 합니다

- 강의 주제 1**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 강의 주제 2** 건강한 소그룹의 목회적 적용
- 강의 주제 3** 소그룹의 소통

- 강의1** (오전10:00 ~11:15)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 로이스 조 원장
- 강의2** (오전11:30~12:45) 건강한 교회의 목회적 적용 - 로이스 조 원장
- 점심식사** (오후12:45~1:45) 식사 및 교제
- 강의3** (오후1:45~3:00) 소그룹의 소통 - 씨니 김 목사

일 시: 2024년 7월 8일(월) 오전 10시
등록마감: 2024년 6월 30일(일)까지(선착순 30명)
등록비: 20불
장 소: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주 최: 기독일보
문 의: 기독일보 (213)434-1170
 Email : chdailya@gmail.com



강사: 로이스 조 원장
 Fuller Seminary MA
 미연합침례교회 소그룹 아카데미 훈련원장 역임
 CRC 커피브레이크 북미주 부대표역임
 Small Group & Leadership Academy 대표



강사: 씨니 김 목사
 풀러신학교 선교학 박사
 LA씨티교회 담임목사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실천신학 교수
 아시아선교연구소 연구원

소그룹 리더 세미나



체험사례

- “허리통증과 왼쪽 골반, 무릎, 종아리가 고질적으로 아파서 너무 고생했는데 이젠 신발 신고 너무 좋아요”
- “왼발을 질질 끄는데 이 신발 신자마자 그냥 걷고 있습니다”
- “스트로크로 2개월간 병원에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이 신발 신고 지팡이 버리고 갑니다”
- “족저근막염으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엄청 힘든데 이젠 괜찮아요”
-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는데 이 신발신고 교정해 발이 편해졌어요”
- “하루종일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젠 안 피곤해요”

신발이 발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망가진 발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변형된 발은 신체의 근육과 관절, 골반, 척추 등 기타 통증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5월 가정의 달 구매고객 경품 추첨자 발표

- 1등 1명 JGP트랙킹화는 경품권 #1012
- 2등 2명 JGP일상화는 경품권 #1121, #1196
- 3등 4명 JGP 슬리퍼는 경품권#1675, #1018, #1632, #1670
- 4등 25명 가족로션은 경품권 #1033, #1113, #1126, #1061, #1061, #1079, #1613, #1672, #1006, #1006, #1021, #1037, #1057, #1629, #1629, #1078, #1002, #1095, #1094, #1094, #1114, #1066, #1125, #1621, #1621

YouTube **기적신발TV**
www.jgpamerica.com



**예약
접수**



올림픽 갤러리아 상가 연합회 회장 박창우(세종문고)대표(왼쪽)와 JGP 대표 김병석(오른쪽)

신는 순간부터 허리에 강한 힘을 주고 신체 균형을 잡아주면서 신체를 교정합니다.
발을 알고 **신발**을 신으면 더욱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
예약 안내
구입 문의

올림픽 갤러리아 3층
푸드코트 옆

(213)330-6810

3250 W. Olympic Blvd. #304 LA, CA 90006